

초등학생의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에 따른 Holland유형과 소질의 관계분석

김병숙^{1*}, 최은영², 최정은³

¹한국직업상담협회, ²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³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The Correlational Analysis between Holland Personality Types and Gifted by the Cerebral Hemisphere Dominant Featur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ung-Suk Kim^{1*}, Eun-Young Choi² and Jeong-Eun Choi³

¹KVOCA, ²Departmen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³Departmen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Holland 성격유형 및 소질이 다르게 나타내는지 검증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까지 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예술형과 진취형이 우반구적 특성을 우세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 현실형, 탐구형과 사회형, 관습형은 특징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좌반구에서 RIC(현실형·탐구형·관습형)군집이 SAE(사회형·예술형·진취형) 군집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우반구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창의성소질, 자연소질, 대인관계소질, 신체소질 등 소질에서는 우반구가 우세했으나 음악소질, 수리소질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Holland 성격유형,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소질 간에는 좌반구와 예술형, 우반구와 사회형을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Holland personality types and tal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cerebral hemisphere and their relationship. The study is targeted 679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xamined the hypothesis, frequency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8.0 were conducted. Firs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tistic and enterprising types appeared more evident in the right-brain than left-brain. Second, there are positively conspicuous differences between RIC group and SAE group in left-brain. Third, in comparison with cerebral hemisphere and tal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reative, nature, communicative and body appeared more evident in the right-brain. Fourth,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in Holland personality types, cerebral hemisphere, and talent. However,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left-brain and artistic type, right-brain and social type.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lland personality types, Cerebral hemisphere dominant feature, Tal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생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의 특기와 적성[1-4]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자기효능감[5-8] 진로대리학습[9]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10-13]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Byung-Suk Kim(KVOCA)

Tel: +82-2-584-4227 email: bsllkim@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 2013

Revised October 9,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그러나 개인의 진로행동은 단순한 영역이 아닌 민족, 문화, 계급, 성 등의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 차이점 등의 맥락적 이해 없이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음[14]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적 변인에 대한 연구 [15,16]만 일부 있을 뿐 맥락주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이 학생의 진로발달과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3]는 주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일반특성, 가족구성원, 부모직업, 거주 지역 및 거주환경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16]는 맥락주의적 주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 성격, 가치 외에도 대뇌반구의 특징, 출생순위, 가족가계도, 타고난 자질과 소질 등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14]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초등학생 시기를 진로탐색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욕구와 흥미를 발달시키면서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했다[17-20]. 한편, Holland[21]는 직업적 성격유형의 발달은 아동이 어릴 때부터 부딪히는 문화적 개인적 환경 내에서의 영향력 즉 부모나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치를 경험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Buss, Plomin, Willierman[22]는 태어나면서부터의 기질적 요소가 Holland의 흥미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초등학생의 유전적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는 맥락적 접근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전적 환경과 다양한 문화적·개인적 환경이 Holland 6가지 성격유형요소를 발달시킨다는 연구[14]에 주목한다. 또한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이 선호(preference)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선호의 발달은 다시 흥미를 유발시키며, 흥미는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23]는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 중학교 여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학생 등에서 좌반구의 특성이 우반구의 특성보다 우세하다는 연구[24]를 발전시켜 Holland 성격유형과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과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및 소질,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별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이 다른 것인가?

둘째,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의 군집에 따라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이 다른 것인가?

셋째,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소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넷째, Holland 성격유형,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소질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맥락주의

초창기 직업심리학자들은 실증주의 입장을 주장했으나 최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논리적 이론을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실증주의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임의의 관점에서 지식을 창출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지식창출의 주요인자로 보고,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무의식, 의지 등을 중요시하며, 형태, 상징, 신화 등의 문제를 깊이 연구한다[14].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는 크게 맥락주의(contextualist)와 다원주의(pluralist)로 대별할 수 있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철학적 토대로 하는 맥락주의는 진로연구와 진로상담에 대한 맥락적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안된 방법이다. Shar에 의하면 개인은 정보를 조직화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구축하며, 개인의 발달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여러 개의 이질적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14]. 이런 관점에서 맥락주의는 공동체들이 지역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유지하는지 연구하는데, 이때 인간의 진로행동은 민족, 문화 계급, 성 등의 문제와 얽혀있다고 주장한다. 즉 진로가치, 흥미, 정체성, 행동 등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형성이 되며 진로는 이런 행위 간의 연결점을 구축하고 계획, 목표, 정서 및 내부 인지 등을 평가하면서 발달해간다[25].

그러므로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유전적 및 환경적 맥락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직업발달사 측면에서 우리 문화가 형성해온 직업적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의 가족사적 논점, 선천적 신체적 특성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논의하여 진로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14].

2.2 Holland 성격유형

Holland 이론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정을 기초로 하

고 있다[21].

첫째,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realistic; R), 탐구적(investigative; I), 예술적(artistic; A), 사회적(social; S), 진취적(enterprising; E), 관습적(conventional; C)’ 등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머리글자 RIASEC는 6가지 유형의 이름과 순서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각 사람의 유형은 그가 환경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둘째, 6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에도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인 6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각 환경에는 그 성격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자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지각수준에서 환경을 탐색하고,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성격유형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한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의 성격에 맞는 환경 패턴을 안다면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변경하고 성취하는 과정 등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제시한 6가지 흥미유형과 직업적 특성으로 현실형은 신체를 활용하거나 도구를 다루며 실제적 결과를 추구하며, 탐구형은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다. 예술형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사회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돕는 것을 즐긴다. 진취형은 조직목표나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 타인을 리더하고, 관습형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활동을 선호한다[26]. 연구를 거듭하면서 6가지 유형 중의 하나가 지배적으로 사람의 흥미 특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하위유형 또는 다른 성격유형이 있어 상호작용 한다고 제시하였다.

Holland[21]의 진로 이론은 구조적 상호작용이론, 유형론적 상호작용이론이라 불린다. 즉 진로에 있어서 사회행동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진로란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등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진로안정성과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능,

성, 사회계급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흥미를 다르게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구조 내에서 진로에 대해 모아진 자료는 연령, 성, 사회계급, 필요한 노력 등이 어떻게 진로선택을 제한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이론적 구성개념을 기초로 한 예측은 앞에서 설명된 여러 변인들을 고려할 때 더 좋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14].

2.3 대뇌반구

인간의 대뇌반구(cerebral hemisphere)는 구조적으로 좌우반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반구는 각 2억 개의 신경 섬유(nerve fiber)로 구성되는 뇌량(corpus callosum)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행동의 통제뿐만 아니라 학습, 기억, 사고, 문제해결 등에 대한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신경세포로 조직, 구성되어 있다[27].

각 반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어느 한쪽의 반구는 다른 쪽 반구에 비하여 어떤 특정한 과제를 잘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좌우반구의 기능적 차이를 뇌의 기능적 특성이라고 한다[28].

뇌의 좌우반구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사고기관으로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뇌의 기능분화라고 하였으며[29], Herrmann [30]은 뇌의 지배적 특성이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선호의 발달은 다시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 구별되는 Holland 코드와의 관련성으로 현실형은 관념이나 사람과 일하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공구, 기계, 동물 등과 옥외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므로 좌반구의 분석적 정보처리와 관련이 있다. 탐구형은 관념이나 단어로 일하기를 좋아하며 특히 과학과 관련되므로 좌반구의 논리적, 언어적, 분석적 정보처리 등과 관련이 있다. 예술형은 심리적, 혁신적, 직관적인 능력을 갖고 상상 또는 창조성을 사용하기를 선호하므로 우반구의 직관적, 종합적, 시공간적, 감각적 정보처리와 관련이 있다. 사회형은 사람을 좋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며 돕는 것을 선호하므로 우반구의 직관적, 종합적, 감각적 정보처리와 연관이 높다. 진취형은 이야기하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뛰어나므로 우반구의 직관적, 종합적, 시공간적, 감각적 정보처리와 관련이 있다. 관습형은 타인의 지시를 따르며 세부적인 활동을 수행하므로 좌반구의 논리적, 단편적, 분석적 정보처리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좌반구는 Holland의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등의 특성과 연관이 높으며, 우반구는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31].

2.4 소질

소질(talent, aptitude, predispositin)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과 기질, 정신적·신체적 특성이운데 유전적·생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영어표기를 갈게 사용하는 적성(aptitude)에서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적성은 교과영역에서나 한 직업분야에 관련된 어떤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소질’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이면서 소질·적성이라고 복합명사처럼 쓰고 있다[32]. 즉 소질은 적성과 같은 개념으로 좀 더 기질적이고 생득적인 특성을 반영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광의의 소질과 협의의 소질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후자의 개념은 소질의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리학 및 심리학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며 천부적인 것이다. 즉 사람의 개성과 품성에 대한 알기 쉬운 정태적 표현이다. 광의의 소질은 철학과 교육학에서 말하는 소질로서 선천적인 자질에 기반하며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는다. 소질은 개인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기본소질과 상태를 형성하고 동태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교육의 공동산물로 보며[33], 여기서의 소질은 광의의 소질을 포함한다.

한편 재능 있는 개인들은 잠재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오히려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으며[14], 여러 학자들은 많은 재능이 있는 개인들(특히 여성들의 경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려면, 진로상담과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능력의 형태는 지능, 학문적 태도, 창조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의 성장률 또는 발전, 소질 등이라고 주장하였다[14].

2.5 선행연구 분석

대뇌반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두뇌기능분화 특성에 따른 지능과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연구[34], 개인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선호도[30,35,36]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인식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중학생들은 우반구,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좌반구가 우세했다[34].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 여학생은 좌반구, 남학생은 우반구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예술계열은 우반구, 자연계열은 좌반구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24,35].

성별에 따른 두뇌활용유형과 직업선호를 보면, 남성은 기술적이고 수리적이며 논리 및 분석적인 직업을 강하게 선호하고,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경향을 지닌 직업을 선호한다[30,36].

소질은 다양한 재능이 있는 개인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진로상담 시에 잠재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개인이 속한 하위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로상담 과정 중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사정기법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와 면담과정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결합하여 알 수 있다. 소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음악과 미술 수리, 운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의 소질 적성을 중심으로 한 특기 분야[1-4]에 집중되었다.

Gadner[37]는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음악지능은 자율적인 지적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성장하면서 생기는 음악적 경험에 따라 발달에 개인차가 생긴다고 했다. Gordon[38]은 유아기 때, 만9세 이전 시기까지를 ‘유동음악소질’ 시기라고 부르면서 타고난 음악소질이 만 9세전까지는 음악환경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Holland의 직업흥미에 관한 연구물은 많으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Muller는 아동에 대한 Holland 흥미구조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그는 초등학교를 표본으로 하여 흥미의 순환적 구조가 나타남을 약간이나마 지지하였다. Freeberg와 Rock는 흥미구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39].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 관련 연구에서 이영숙[26]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선호분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탐구형, 예술형, 진취형의 직업을 선호했고, 여학생들은 현실형, 예술형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도 예술형이 도출되었다.

직업카드 분류검사를 통해 주제를 분석한 결과, 현실형은 도구, 조작, 순응, 정직, 겸손, 실용성, 탐구형은 분석, 호기심, 비판, 합리성, 정확성, 예술형은 표현력, 독창성, 심미성, 독립성, 창의성, 사회형(S)은 서비스, 도움, 협조, 친절, 이해심, 진취형(E)은 리더십, 야망, 목표, 재미, 인기, 관습형(C)은 자료, 체계성, 양심, 조심성, 안정 등에 선호도를 보였다[41,42].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과 Holland 성격유형별 연구에서 김남이[24]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의 집단은 좌반구가 우세하나,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의 집단은 우반구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자연계열은 좌반구의 지배적 특성, 인문, 교육, 공학, 예체능 계열에서는 우반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23,43].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6학년 8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방과 후 교사의 도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745부를 수거하였다. 표집된 표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표본을 제외하고 679명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Holland 성격유형,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본인이 자각하는 소질 등을 긍정(예)과 부정(아니오)으로 응답하게 하여 개발하였다.

성격유형은 Holland 성격흥미유형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선호도 검사(2008), 어세스타의 STRONG 진로탐색검사(2009) 한국가디언스 Holland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2009), 한국심리적성연구소 MCI 검사(2010), 한국직업상담협회 직업카드분류검사(2010) 등을 참조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pre-test를 거쳐 19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4이다.

대뇌반구는 한국좌우뇌교육개발연구소 홍양표 좌우뇌 체크리스트, 대학생의 뇌반구 지배적 특성이 직업선호도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23],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뇌반구 특성과 직업흥미 및 직업가치와의 관계분석[24] 등에서 제시된 도구를 참조하여 pre-test를 거쳐 8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3이다.

소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MCI검사(2010) 3종(진로탐색검사, 전공탐색검사, 계열탐색검사)을 참조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pre-test를 거쳐 21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3.3 측정방법

SPSS 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측정문항의 경우에는 각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 방식으로는 varimax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계수를 구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또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의

검증은 $p < .05$ 의 유의수준을 채택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679명을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별로 좌반구, 우반구, 좌우반구 등 3개 집단과 Holland 성격유형별로 6개 집단으로 군집화하였다. 대뇌반구의 경우 좌반구 또는 우반구 문항 양쪽 모두 긍정(예) 혹은 부정(아니오) 응답을 한 사람, 부분적으로 긍정(예) 부정(아니오) 응답을 한 사람은 좌우반구로 군집화하였고, 좌반구 또는 우반구 문항에 모두 긍정(예) 응답한 사람만 좌반구 또는 우반구로 분류하였다. Holland 성격유형은 일관성에 대한 Holland 이론을 토대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등을 기술하는 문항에 50% 이상 긍정(예) 응답한 사람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등으로 중복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Table 1과 같이 초등학생의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에 따른 구성인원은 우반구(81명)보다 좌반구(199명)가 2배 이상 많으며, 조사 대상자의 81.1%가 사회형(250명)으로 응답하여 초등학생들이 사람과 서비스 지향에 매우 높은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관습형(354명, 52.1%), 예술형(268명, 39.8%), 현실형(250명, 36.8%), 탐구형(246명, 36.2%), 진취형(188명, 27.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study

variable		N	%
cerebral hemisphere	left-brain	199	29.3
	right-brain	81	11.9
	left/right-brain	399	58.8
Holland personality types	Realistic	250	36.8
	Investigative	246	36.2
	Artistic	268	39.8
	Social	250	81.1
	Enterprising	188	27.7
	Conventional	354	52.1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별로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Holland 성격유형별 초등학생의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구성인원으로 보면 좌반구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으나 평균점수는 사회형과 관습형을 제외하고 우반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예술형

[Table 2] differences in Holland personality typ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cerebral hemisphere

variable		N	M	SD	t
Realistic	left-brain	139	.70	.29	-1.11
	right-brain	71	.75	.29	
Investigative	left-brain	172	.54	.23	-1.70
	right-brain	72	.60	.25	
Artistic	left-brain	153	.53	.25	-3.24**
	right-brain	74	.65	.24	
Social	left-brain	193	.93	.17	0.29
	right-brain	78	.92	.18	
Enterprising	left-brain	137	.50	.25	-3.65***
	right-brain	58	.65	.28	
Conventional	left-brain	163	.89	.20	0.98
	right-brain	47	.86	.22	

** p <.01 *** p <.001

[Table 3] differences between RIC group and SAE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cerebral hemisphere

variable		N	M	SD	t
left-brain	RIC	41	0.78	0.21	4.24***
	SAE	33	0.64	0.26	
right-brain	RIC	51	0.59	0.28	1.48
	SAE	59	0.53	0.30	

*** p <.001

($t=-3.24, p<0.01$), 진취형($t=-3.65, p<0.001$)에서는 우반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실형, 탐구형과 사회형, 관습형은 기각되었다.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 군집별과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Holland 성격유형을 군집화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좌반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우반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사회형, 예술형, 진취형을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방법은 첫 코드에 준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구성인원은 좌반구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으며 평균점수는 두 군집 모두 좌반구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좌반구에서 유의미한 차이($t=4.24, p<0.001$)를 보였으며, RIC(현실형·탐구형·관습형)군집이 SAE(사회형·예술형·진취형)군집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반면 우반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등학생이 자각하는 소질과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성인원으로 보면 모든 소질에서 좌반구 인원이 많으나 평균점수는 모두 우반구가 높게 나타났다. 대뇌반

구의 지배적 특성과 각 소질별 차이는 창의성 소질($t=-3.83, p<0.001$), 자연 소질($t=-3.23, p<0.01$), 대인관계 소질($t=-2.20, p<0.05$), 신체 소질($t=-3.23, p<0.01$)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수리소질, 음악소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land 성격유형,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소질 간의 상관 검증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좌반구는 예술형, 우반구는 사회형을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반구는 관습형($r=.46, p<0.001$), 진취형($r=.23, p<0.001$), 탐구형($r=.22, p<0.001$), 사회형($r=.12, p<0.001$), 현실형($r=.10, p<0.01$)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반구는 진취형($r=.35, p<0.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탐구형($r=.29, p<0.001$), 현실형($r=.28, p<0.001$), 관습형($r=.24, p<0.001$), 예술형($r=.19, p<0.001$) 순서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 본인이 자각하는 소질에 있어서는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 창의성, 자연, 수리, 음악, 대인관계, 신체소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반구는 수리 소질($r=.34, p<0.001$), 우반구는 창의성 소질($r=.51, p<0.00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differences in tala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cerebral hemisphere

variable		N	M	SD	t
Creative	left-brain	138	.42	.20	-3.83***
	right-brain	63	.54	.23	
Nature	left-brain	154	.57	.29	-3.23**
	right-brain	74	.70	.28	
Mathematical	left-brain	160	.65	.27	-1.03
	right-brain	58	.69	.28	
Musical	left-brain	151	.71	.26	-1.65
	right-brain	69	.77	.25	
Communicative	left-brain	189	.66	.25	-2.20*
	right-brain	80	.74	.25	
Body	left-brain	154	.57	.29	-3.23**
	right-brain	74	.70	.28	

*p <.05 **p <.01 *** p <.001

[Table 5] relationships in Holland personality types, cerebral hemisphere, and talant

variable	left	right	R	I	A	S	E	C	C	N	M	M	C	B
left	1													
right	.32***	1.00												
Realistic	.10**	.28***	1.00											
Investigative	.22***	.29***	.19***	1.00										
Artistic	-.06	.19***	.24***	.26***	1.00									
Social	.12***	.08	.05	.06	.08**	1.00								
Enterprising	.23***	.35***	.20***	.35***	.27***	.13***	1.00							
Conventional	.46***	.24***	.19***	.16***	.01	.13***	.18***	1.00						
Creative	.31***	.51***	.44***	.29***	.21***	.06	.36***	.26***	1.00					
Nature	.30***	.50***	.29***	.37***	.23***	.11*	.30***	.22***	.43***	1.00				
Mathematical	.34***	.32***	.14***	.40***	.14***	.10*	.41***	.30***	.27***	.37***	1.00			
Musical	.13***	.27***	.17***	.07	.10*	.17***	.24***	.12	.23***	.26***	.17***	1.00		
Communicative	.29***	.43***	.33***	.28***	.21***	.24***	.27***	.29***	.34***	.42***	.36***	.21***	1.00	
Body	.10*	.25***	.28***	.11***	.22***	.13***	.36***	.11***	.26***	.23***	.20***	.28***	.25***	1.00

*p <.05 **p <.01 *** p <.001

한편 Holland 성격 유형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현실형과 사회형, 탐구형과 사회형, 예술형과 관습형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Holland가 육각형의 모형에서 주장하는 유형 간의 거리에 따른 계측성에 대한 논의 [44]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5. 결론

5.1 논의

초등학생의 진로탐색의 주요 변인으로 유전적 요인으로서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과 Holland 성격유형 및 소질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가진다.

첫째, 초등학생의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반구보다 좌반구 특성을 지닌 초등학생이 2배 이상 우세하게 나타났다(Table 1참조). 이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 중학교 여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학생 등에서 좌반구의 특성이 우반구의 특성보다 우세하다는 연구[24],[45]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초·중학생들은 우반구,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좌반구가 우세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34]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남녀성비, 학년에 따른 조사 대상의 치우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Holland 성격 유형에 있어 초등학생이 사회형에 가장 우세한 흥미(81.1%)를 보이는 반면 친취형에 가장 낮은 흥미(27.7%)를 보이고 있다(Table 1참조). 초등학생이 사람과 서비스 지향에 매우 높은 흥미가 있는 결과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진로유산으로 꼽고 있는 ‘정(情)의 문화’[12]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초등학생들의 자유분방한 기질과 창의적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감안한다면 관습형이 5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무기명 응답이기는 했으나 담임선생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조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Holland 성격유형에서 탐구형과 사회형을 제외하고 현실형, 관습형, 예술형, 진취형 등에서는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참조). 이 결과는 Holland 성격유형별 고등학생의 대뇌반구 지배적 특성이 관습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던 기존 연구[18]와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현실형, 관습형, 예술형, 진취형 모두 우반구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김병숙 연구[31]에서는 관습형이 좌반구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차이와 연구 대상의 환경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기초한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좌반구의 특성을 지닌 RIC(현실형·탐구형·관습형) 군집이 SAE(사회형·예술형·진취형) 군집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참조). 이는 현실형·탐구형·관습형(RIC) 군집이 사회형·예술형·진취형(SAE) 군집보다 좌반구가 우세하다[31]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반면 사회형·예술형·진취형(SAE) 군집이 우반구가 우세하다는 윤태규[31], 정수호[23]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의 81.1%가 사회형의 흥미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군집의 표본 특성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초등학생이 자각하는 소질에 있어 창의성 소질, 자연 소질, 대인관계 소질, 신체 소질 등 4가지 소질은 우반구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수리 소질과 음악 소질은 대뇌반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예술계열은 우반구 분포가 높고, 자연계열은 좌반구 분포가 높다[34]는 연구 결과와 일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수리 소질은 좌반구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뇌반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이 가진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에 따른 한계가 있다. 또 하나 연구 대상의 연령에 따른 대뇌반구의 특질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2 결론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별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및 소질의 관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별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이 다를 것인가에 대한 검증결과, Table 2와 같이 예술형과 진취형 등이 우반구적 특성을 우세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 현실형, 탐구형과 사회형, 관습형 등은 우반구와 좌반구의 특징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반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나 좌반구 특성이 탐구형과, 현실형, 관습형 등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 군집에 따라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이 다를 것인가에 대한 검증결과, Table 3과 같이 좌반구에서 RIC(현실형·탐구형·관습형) 군집이 SAE(사회형·예술형·진취형) 군집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우반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기존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RIC 군집이 좌반구적 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Holland 성격유형별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에서는 예술형과 진취형이 좌반구에 비해 우반구적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에도 SAE 군집이 RIC군집보다 우반구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 대상 중 81.1% 이상이 사회형을 차지하고 있어 군집의 특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소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창의성 소질, 자연 소질, 대인관계 소질, 신체 소질 등 4가지의 소질에서는 우반구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음악소질, 수리소질에서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를 이용한 야외활동을 선호하고, 돌봄의 정서에 익숙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성을 발달시켜 가는 초등학생의 특성과 우반구적 특성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넷째, Holland 성격유형, 대뇌반구의 지배적 특성, 소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좌반구와 예술형, 우반구와 사회형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않는다. 좌반구와 예술형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5.3 연구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맥락적 진로교육 접근이 요구된다.

급격한 진로교육의 확대에 인하여 학교 현장은 실증주 의적 입장에서 단편적 검사도구 결과에 의존하고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진로는 유전적 및 환경적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우리 문화가 형성해온 직업적 행동, 가족사적 논점, 개인의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Holland 이론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갖는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진로발달 단계별로 변화되는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Holland의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이 갖는 한 가지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진로발달단계에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초등학생이 갖는 유전적인 변수들이 환경에 의해 어떤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초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예언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맥락적 접근의 진로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은 진로환상의 단계를 거쳐 진로탐색하는 과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1학년에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므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로를 맥락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진로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

References

- [1] K. J. Kang, "The effect of a career maturity on the specialty skills, aptitude program for primary school children", Konkuk University, MA. Thesis, 2000.
- [2] J. Y. Jo, "Study on operating of specialty aptitude training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00.
- [3] Y. K. Kim, "Participation and the effect on specialty aptitud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je University, MA. Thesis, 2004.
- [4] S. Y. Bak, "A Study on specialty aptitude education of Elementary after School", Hongik University, MA. Thesis, 2007.
- [5] O. R. Han,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attachment to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08.
- [6] Y. J. Kim,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Career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0.
- [7] H. R. Le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goal-orientation to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tudents by gender", Konkuk University, MA. Thesis, 2011.
- [8] J. H.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Job Satisfac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2.
- [9] M. S. Ryu,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Belief and Maturity by Vicarious Learning",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05.
- [10] O. H. Kim, "A Study on effect & developmen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ngik University, Ph.d Thesis, 2001.
- [11] H. Y. Jin, "Career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career awarene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wha woman University, MA. Thesis, 2005.
- [12] J. Y. Gang, "Demonst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a self-directed career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career awareness and career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0.
- [13] Y. G. Yi, "The Effect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areer-Development and Learning Attitud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12.
- [14] B. S. Kim, MCI Manual, Korea Institute for Psychological Aptitude Test, 2010.
- [15] Y. S. Park, "The Correlation between home surrounding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 Thesis, 2008.
- [16] Y. S. Park, J. W. Kim, S. W. Lee, "The Relation Between Home Surrounding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0(2), pp. 151-171, 2010.
- [17] Ginzberg, E., Ginzburg, S. W., Axelrad, S., & Herma, J., "Occupational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18] 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57.

- [19] Tuckman, B. W.,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pp. 193-212, 1974.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4\)90104-3](http://dx.doi.org/10.1016/0001-8791(74)90104-3)
- [20] Gottfredson, L. S.,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1.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8.6.545>
- [21]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5.
- [22] Buss, A. H., Plomin, R., & Willerman, L., "The inheritance of temperaments", *Journal of Personality*, Vol. 41, pp. 513-524, 1973.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73.tb00109.x>
- [23] S. H. Jeo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ominant feature of Cerebral hemisphere on Vocational preference and Career recognition",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09.
- [24] N. Y. Ki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Cerebral Hemisphere Characteristic with Their Vocational Interest and Vocational Value",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0.
- [25] B. S. Kim, *The History of Vocation development in Korea*, Sigma Press, 2007.
- [26] Holland, J. L., "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 51, pp.397-406,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1.4.397>
- [27] Teyler, T. Y., *An Introduction to the neuroscience beatty*. In Jacksn, et al., *The human brain*. New Jersey : Prentice Hall., 1977.
- [28] H. G. Gang, "The func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of a cerebaral hemispheres", *Annual report in science and math education*, Vol. 6, pp. 69-70, 1991.
- [29] Herrmann, N., "Whole brain Thinking", *Executive Excellencel*, 1991.
- [30] Herrmann, N., *The Whole brain Business Book*, McGiaw-Hill, 1996.
- [31] B. S. Kim, D. H. Bak, M. J. Kim,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erebral hemisphere dominance by the types of high school students' personality in Holland and vocational valu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3), PP. 77-98, 2011.
- [32]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p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Konkuk University, MA Thesis*, 2002.
- [33] Gayoungdang, *Aptitude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Youngjoongwhagi University Press, 2006.
- [34] Y. H. Ko, "Brain research and education",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Vol. 4, pp. 12-26, 1989.
- [35] G. S. Choe, T. G. Yun, U. T. An, N. G. Yangl, J. S. Go, K. H. Park, "Study on the Cerebral Laterality Patter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1(2), pp. 749-761, 1995.
DOI : <http://www.riss.kr/link?id=A2045528>
- [36] C. G. B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and occupational preference", *Hanyang University, MA. Thesis*, 2001.
- [37] Gardner, H., (M. H. Kim Translate),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and the practice*, Seoul: Yangseowon, 1998.
- [38] Gordon, E. Edwin,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 GIA, 1987.
- [39] J. O. Lee,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2.
- [40] Y. S. Lee, "Relationships between Identity and job interest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Ewha woman University, MA. Thesis*, 2002.
- [41] B. S. Kim, S. J. Bak, B. I. Kim, "Analysis on Accord Level of Youth's Interest, Aptitude, Value through Occupational Card Sor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4), pp. 1-21, 2007.
- [42] B. S. Kim, *Job cards for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category guidelines*, Korea Association of Vocational Counseling, 2008.
- [43] H. S. Gwak, "Effects of differential learning of left-brain, right-brain prevalent, sex and type of organizer presentation on text learning", *Korea Education Psychology Association*, 13(1), pp. 21-47, 1988.
- [44] Holland, J. L., *Making supplement for the Self-Directed Research*,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73.
- [45] J. H. Choi, "Effects of Hemispheric Specialization on Logical Thinking and Elementary School Science Unit Achievement", *The Research Of Science Mathematics Education*, Vol. 37, pp. 53-89, 1993.
DOI: <http://www.riss.kr/link?id=A2040569>
- [46] T. G. Yun, G. S. Choe, U. T. An ,N. G. Yangl, J.

S. Go, K. H. Park, "Study on the Cerebral Laterality Patter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1(2), pp. 763-772, 1995.

김 병 속(Byung-Suk Kim)

[정회원]



- 2000년 3월 ~ 2013년 3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주임 교수
- 2008년 1월 ~ 현재 : 한국진로교육학회 고문
- 2007년 3월 ~ 현재 : 김병속 Job & Mental Clinic 원장
- 2003년 12월 ~ 현재 : 한국직업상담학회 회장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

최 은 영(Eun-Young Choi)

[정회원]



- 1997년 8월 : 숭실대학교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수료
- 2008년 3월 ~ 2008년 1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래강사
- 1998년 2월 ~ 현재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공무원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

최 정 은(Joeng-Eun Choi)

[정회원]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 2013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수료
- 2000년 2월 ~ 2010년 3월 : 한국YWCA연합회
- 2012년 3월 ~ 2013년 6월 : 광운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직업상담, 진로교육